



■ 혼종문화



이미지 출처: 알라딘

원제: Culturas Híbridas (2009)

네스토르 가르시아 칸클리니 (지은이) | 이성훈 (옮긴이)

출판사: 그린비

출간일: 2011-02-15

ISBN(13): 9788976827449

472쪽 | 153*224mm

아르헨티나 출신의 문화연구 석학 네스토르 가르시아 칸클리니의 책으로, 문화적 ‘혼종성’을 라틴아메리카 현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념화하여 문화연구의 지평을 넓힌 역작으로 꼽힌다. 가르시아 칸클리니는 이 책에서 라틴아메리카의 근대가 전통적 요소와 근대적 요소가 혼종적으로 얽힌 다시간성을 가질 뿐 아니라, 계급적으로도 복합적인 상호의존과 갈등관계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그동안 라틴아메리카 현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근대 사회과학의 서구중심적 역사관과 이분법적 세계관을 비판하며, 탈식민주의 문화연구계에 커다란 화제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 책은 그의 주저로서 1989년 초판 발행 이래 수많은 논쟁을 낳으며, ‘혼종성’ 개념을 탈식민주의 이론의 핵심 개념으로 정착시킨 문화연구의 고전으로 꼽힌다.

■ 멕시코의 세 얼굴 : 고독의 미로



이미지 출처: 알라딘

원제: El laberinto de la Soledad (1997)

옥타비오 파스 (지은이) | 황의승, 조명원 (옮긴이)

출판사: 세창미디어

출간일: 2011-0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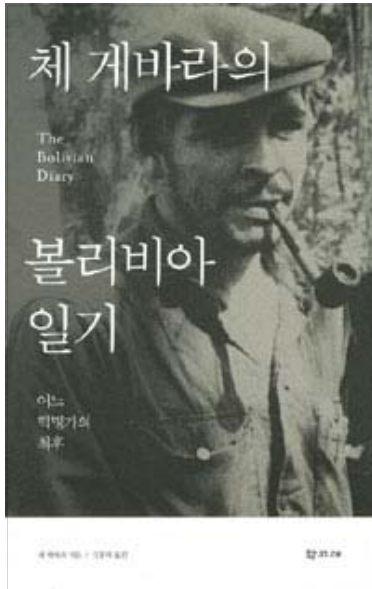
ISBN(13): 9788955861228

400쪽 | 161*230mm

『멕시코의 세 얼굴』은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옥타비오 파스가 멕시코인과 그들의 사회, 국가를 날카롭게 파헤친 작품이다. 이 책에서 그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멕시코의 어제와 오늘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냉정히 그려낸다. 출간 후 멕시코에서만 1백만 권 이상 팔릴 정도로 폭발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나, 동시에 상당수의 멕시코인들로부터 비판적인 시선을 받은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저자는 멕시코인과 라틴아메리카인을 묘사하면서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밝히는데, 책의 가장 근원적 주제인 고독과 인간 상호 간의 교감, 구원은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 문제이기도 하다. 즉, 20세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지성 중 하나인 옥타비오 파스는 이 작품을 통해 영원히 남을 화두를 독자들에게 던진 셈이다. 또한, 이 책에는 멕시코를 포함한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 역사, 국가발전,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대해 갖고 있는 시각들이 담겨 있다.

■ 체 게바라의 볼리비아 일기: 어느 혁명가의 최후



이미지 출처: 알라딘

원제: The Bolivian Diary (2009)

체 게바라 (지은이) | 김홍락 (옮긴이)

출판사: 학고재

출간일: 2011-01-31

ISBN(13): 9788956251080

316쪽 | 153*224mm

카스트로와 함께 쿠바 혁명을 성공으로 이끈 체 게바라가 1966년 볼리비아 동남부 냥카우아수에 도착한 날부터 1967년 유로 계곡 전투에서 정부군에게 체포되기 전날까지 쓴 일기이다.

『체 게바라의 볼리비아 일기』는 체 게바라라는 한 인물의 역사일 뿐 아니라 치열한 게릴라 부대의 행적을 완벽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가 된다. 체 게바라는 게릴라 부대의 생활을 기술하고 그들이 경험한 전술적 오류와 실패, 당시의 정황을 미화하지 않고 사실적으로 담아냈다. 주 볼리비아 대사의 스페인어 원전 번역으로 완성된 이 책은 그가 남긴 기록을 최대한 생생하고 정확하게 옮겨냄으로써 영원한 혁명가 체 게바라의 마지막 자취를 전한다.

■ 라틴아메리카의 신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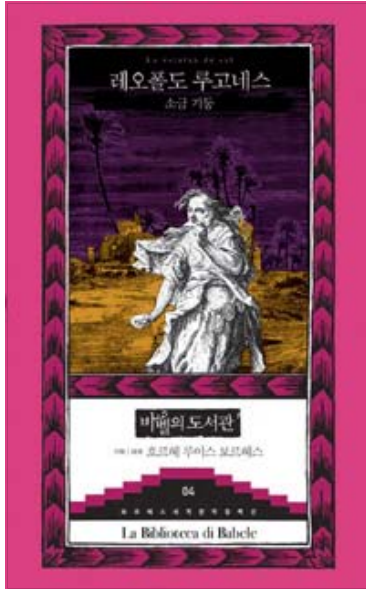
이미지 출처: 알라딘

송병선 (지은이)
 출판사: 이담북스(이담Books)
 출간일: 2010-12-13
 ISBN(13): 9788926817759
 268쪽 | 153*224mm

외국 영화사에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던 쿠바와 국영 독점기관을 창설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국내 영화가 국내 시장의 50%를 차지한 브라질을 제외하고 역사적으로 라틴아메리카의 영화산업은 미국의 대형 영화 제작자와 배급사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영화 시장은 미국과 유럽의 메이저 영화를 판매하는 미국계열의 배급사와 국내제작물과 미국과 유럽의 마이너 영화를 취급하는 자국 배급사와의 불공정 경쟁관계에 있어 왔다. 미국은 자본주의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었으며, 영화 또한 자국 내에서 만으로도 제작비용을 건질 수 있었다. 반면에 라틴아메리카 영화의 시장은 보잘 것 없이 좁았으며 외국 수출의 가능성도 작았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영화는 미국의 영화와 어떤 변별성을 지니면서 자국의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발전할 수 있었는지, 라틴아메리카의 신영화는 라틴아메리카 영화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라틴아메리카의 신영화』에서는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의 현대 영화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소금기둥



이미지 출처: 알라딘

원제: Venezuela sembrada de orquestas (2004)

레오폴도 루고네스 (지은이) | 조구호 (옮긴이)

출판사: 바다출판사

출간일: 2010-12-15

ISBN(13): 9788955615692

154쪽 | 132*213mm

20세기 가장 위대한 작가 중 한 명이자, 작가들의 작가라고 불렸던 보르헤스가 선집한 독특한 세계문학 전집 〈바벨의 도서관〉 시리즈의 네 번째 책이다. 보르헤스가 '환상'이라는 키워드로 작품 목록을 추린 이 시리즈는 보르헤스가 직접

작가와 작품에 대한 해제가 실려 있다. 그의 해제들은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문학에 대한 독특한 감상법과 그의 창작의 배경도 은근히 내비치고 있다.

이 책에는 아르헨티나 문학의 대표작가 레오폴도 루고네스의 작품 일곱 편이 실려 있다. 원숭이에게 언어를 가르치려는 한 학자의 이야기 「이수르」를 비롯하여 어느 가상의 도시에 묵시록적인 종말이 닥치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한 사람의 이야기 「불비」, 성서의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재로 종말에 사로잡힌 한 수도자의 이야기를 다룬 표제작 「소금기둥」 등 시의 운율을 닮은 그만의 환상소설들을 만날 수 있다.